

2010.12.13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12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“서민물가 안정대책” 중 농업부문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.

□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본방향

- 단기적으로는 김장철 농산물 가격안정화에 집중
- 중장기적으로는 관측기능 보강,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수급·가격 안정 대책 마련

□ 주요내용

1. (김장철 가격안정) 마늘배추 등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

○ (마늘) 공급가격 인하, 관세인하 및 공급물량 확대 추진

- 농협, 유통공사를 통해 김장철 수요량 1.5만톤에 대해 평년수준(6,113톤)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
 - (국산) 9,844원/kg(12.6) → 6,000원대로 할인하여 판매(농협 5천톤, 유통공사 5천톤)
 - (수입산) 5,880원/kg(12.6) → 수입원가(4,000원대)로 직판(유통공사 5천톤)
- 내년도 시장접근물량(1.4만톤)을 12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 1월부터 즉시 판매하고,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(50→10%, 내년상반기)

○ (무, 배추) 소비지 도시에 직거래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시중가격보다 10~20% 할인판매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

- 농협·지자체 주관 김장시장 50개 개설 및 농협하나로마트 2,440곳 할인 판매

- 농협 계약재배 잔여물량(3.6만톤) 중 1.8만톤을 12월에 조기출하

○ (양파, 건고추) 금년도 시장접근물량(고추 3천톤, 양파 6천톤)을 12월중 집중 방출하고, 국산 계약재배물량 공급 확대

- 계약재배 재고량의 60%(고추 1.5천톤, 양파 57천톤)를 김장철에 전량 출하

2. (농수산물 수급안정 강화) 농업관측기능 보강, 계약재배 확대, 비축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기반 조성

○ (농업관측 강화) 관측주기 단축, 조사표본 확대(채소류)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관측품목 확대

- 관측주기 단축 : 월1회→3회, 조사표본 확대 : 2,557→3,657호(1,100호↑)
- 중기관측품목 확대 : 배추·무·대파·양파·돼지·육계 → 마늘·고추·오이·호박 추가

○ (계약재배 확대) 무·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물량을 증량하여 수급안정 조절기능 강화

○ (수산물 비축확대) 주요 수산물(오징어, 고등어, 명태, 갈치)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(0.5→1% 수준)

※ 농수산물 수급안정 강화를 위해 재정 등에서 1,000억원 수준 추가지원 추진

3. (직거래 활성화) 직거래장터 확대 및 직거래 방식 다양화

- 소비지 뿐 아니라 생산지 인근 도시에 직거래 장터 확대 유도
-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*, 인터넷 공동구매(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활용) 등 직거래 확대
 - ('10년) 250개교 → ('11년) 1,000개교 → ('12년) 2,500개교

4. (유통구조 개선) 거래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 효율화

- 현물거래로 발생하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거래 확대
 - 유통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(수수료 : 0.5→0.3%) 적극 홍보
-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경매외 정가·수의매매 활성화
 - (현행) 경매원칙, 정가·수의매매 예외허용 → (개선) 정가·수의매매 원칙 허용

5. 주부모니터단 물가견담팀(11.18일 발족)을 활용한 소비자감시 강화

- 주부모니터단의 체감물가 조사결과를 활용하고,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
 - 주부모니터단 1차 모니터링 결과
 - (시장 감시가 필요한 분야) ① 원산지 허위표시(47%, 배추·육류·고춧가루 의심), ② 과도한 가격인상(22%), ③ 가격담합(16%) 순
 - (기타 정책제안) ① 김장철 또는 상시 직거래 활성화(25%), ② 유통단계 투명화 등 유통구조 개선(18%) 등

6.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

- 관계부처 합동 상시점검시스템을 구축(10.11월)하고,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 실시
 - (구성) 공정위·국세청·재정부(이상 상시포함) + 해당 소관부처
 - (점검품목) 콩, 마늘, 두유, 김치 등 서민밀집품목
- 김장철을 맞아 배추, 육류,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 점검(12월)
 - 농·수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점검 실시

7. 관세인아를 통해 국내가격 안정 유도

- 옥수수, 밀, 대두, 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(원재료)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추진하여 국내물가 파급을 최소화
 - 할당관세 품목(안) : ('10)57→('11)67개 (최종 품목 및 세율은 12월중 발표)

주간농업·농촌동향 생명산업 2020 발전전략

※ 본 자료는 지난 12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생명산업 2020 발전전략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생명산업의 정의 및 범위

○ (정의) 동·식물, 미생물 등 생명자원과 이를 관리·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고부가가치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

○ 생명산업의 주요 대상 및 범위(예시)

- (농림수산물) 1차 농림수산물 생산 등
- (종자산업) 농작물, 가축, 임산물, 수산물 등 품종개량 등
- (바이오산업) 바이오의약, 화학, 식품, 에너지, 공정, 정보
- (산업미생물) 효소, 단백질, 항생제, 미생물제제, 발효가공
- (식품) 식음료품, 발효식품(주류포함), 건강기능식품 등
- (천연소재) 천연화합물, 천연조미료, 생분해소재, 미네랄 등
- (사료) 배합사료, 사료첨가제 등
- (곤충, 관상동식물 등) 곤충, 애견, 관상어류·조류 등

□ 발전전략 개요

○ 세계 수준의 생명자원 확보 및 DB 구축

○ BT, NT 등 융복합 기술 R&D확대

○ 생명산업 기업 육성

※ 6대 집중 육성분야 : ①종자산업, ②기능성·의약소재개발, ③동물의약품산업, ④미생물산업, ⑤바이오에너지개발, ⑥애완·관상동식물산업

□ 세부내용

○ (생명자원 확보) 다양한 농림수산 생명자원 확보 및 유전적 특성을 평가하여 신종종육종, 기능성물질 등 생명공학 등의 생명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

- 농업분야 생명자원을 현재 21만점(세계 6위)에서 '20년도에 34만점(세계 5위)으로 확대

- 13%에 머무르고 있는 특성평가비율을 '20년도에 80%까지 확대

- 기관별, 분야별로 관리되는 생명자원에 대해 종합정보시스템(DB)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'13년도까지 60억원을 투자, 자원정보검색부터 분야까지 One-Stop 서비스 제공할 계획

○ (R&D 강화) 농림수산식품 R&D를 개편하여 천연의약 소재, 품종육종 및 바이오에너지 등 생명산업분야에 확대 지원

- '농림기술개발사업'을 '생명산업기술개발'사업으로 개편, 확대하고 향후 10년간('11~20년) 1조 1,964억원 투자

- '농생명 원천기술연구'를 위해 「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」을 내년부터 착수하여 '20년까지 10년간 8,150억원을 투자하여 유전체해석 및 유용 유전자 발굴, 바이오장기생산기술 등을 연구할 계획

-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21세기 프론티어사업결과 나온 연구성과 중 생명산업분야를 산업화하기 위해 「생명자원소재의 산업화 기술개발」을 '12년~'21까지 1조 3,860억원 투자계획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

○ (생명산업 육성) 생명산업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활성화 및 지역의 농림수산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육성

- 생명산업 기업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모태펀드를 최대한 활용

· 농식품모태펀드 : (2010) 597억원 → (2020) 약 1조원 조성

- 민간육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에 필요한 첨단시설 및 장비 등이 집적된 민간육종단지 조성('11~'15, 270억원 투자)하고, 또한 약용

작물을 이용한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('11~'12, 100억원)를 설립하여
기능성식음료·의약·화장품 등 개발 및 생산 지원

- 지역의 농림수산자원을 원료로 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 구축
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원료생산 및 산업화 기술 지
원 계획

· 지식경제부 등에서 지역별로 바이오산업진흥센터 등(25개소)을 설립 지원

○ (향후 계획) '11년부터 '20년까지 10년간 총 7조 4,639억원 투자 계획

- 11년도에 4,045억원을 투자하고, 12년부터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
본격 추진